



김건상 박사

Artery, Vein/동맥, 정맥 <상>

동맥은 windpipe라는 뜻의 그리스어의 arteria에서 유래되었고 정맥은 대리석 등 돌의 결 또는 무늬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옛 사람들은 동물이나 사람의 사체에서 속이 텅 빈 동맥과 피떡으로 가득 찬 정맥을 보았지만 혈액 순환과 연결하여 생각하지는 못했던 같다. 동맥 특히 대동맥 같이 커다란 동맥 내에는 사후에 공기가 들어차게 되는 데 사체의 X선 촬영에서 증명 되고 있다.

초음파가 의학에 이용되기 전에는 태아가 자궁내에서 사망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산모의 복부 X선 촬영을 하여 태아를 확인하고 태아의 복부에 커다란 pipe 모양의 공기음영을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사체의 동맥은 정말 windpipe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정맥의 어원이 돌무늬라는 것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옛날에 사람들이 아주 못되게 굴어서 신은 사정이나 개혁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물벼락을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대홍수의 이야기는 기독교 성경에도 희랍의 신화에도 그리고 남미 잉카의 전설에도 한결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일 것으로 믿어진다. 하여튼 희랍 신화를 보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지고 황금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그리고 철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점점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신을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자 제우스는 중대 결심을 하고 하늘로부터는 장대비를, 바다로부터는 해일을 일으켜 온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는데 기독교 성경에서와 같이 높은 산 하나가 물에 안 잠기

고 어느 부부 한 쌍만 살아남게 된다.

산 이름은 파르나소스 산이고 살아 남은 부부는 테우칼리온과 피라인데 돌이서 부지런히 인구를 다시 늘려 갈 생각을 하니 매일 그 일만 할 수도 없고 한심하여 테미스 신에게 어떻게 좀 해 달라고 청을 넣었다고 한다.

테미스 신의 인구 증가책에 관한 계시는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뒤로 던지라는 것이었는데 똑똑한 부부는 어머니는 대지를, 뼈는 돌맹이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여 돌을 등뒤로 마구 던졌다. 이 돌이 변하여 사람이 되었고, 돌무늬는 그대로 살아 남아 피부를 통하여 관찰되는 정맥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vein 즉 정맥은 돌무늬를 뜻하기도 하고 정맥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라고 한다. 그러면 홍수가 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정맥이 없었을까? 필자는 어느 국문학자에게서 돌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돌고 돈다는 뜻의 돌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바위-돌-모래-흙의 자연 순환의 한 길목에서의 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돌무늬가 혈액순환의 중요한 길목인 정맥이 된 것도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닐 듯하다.

이발소 앞에는 빨간줄, 파란줄, 하얀줄의 삼색 무늬가 있는 등을 쳐놓고 있다. 빨간색은 동맥을, 파란색은 정맥을 그리고 하얀색은 봉대를 의미한다고 한다. 오래전에 서양에서는 이발사와 외과 의사가 동일인이었거나 동업자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계속>